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YG 졸업식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이름으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4:13-22

내 주를 가까이

“사십 세가 넘었더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 357)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예배시간에 YG 졸업식이 있습니다.
: 박재현(중등), 이세희(고등)
3. 다음 주일 (7/26)에 “생명의삶(10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4. 큐티책 8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직접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관보다는 준비를 하는 우리들

요즘 코로나 이전 보다 저에게 회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노회, 대회, 혹은 이보교 심지어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 미팅에도 참여를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긴 하지만, 영상으로 회의를 하다보니 이전보다 훨씬 많은 만남을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시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6월에 어르신들을 직접 심방하면서 마스크를 낀 얼굴이지만 얼굴을 마주하니 참 좋았습니다. 여름이 가면 한번 더 심방을 해볼까 합니다. 주일예배를 통해서 얼굴이라도 보는 분들은 좋지만, 영상예배만 드리며 전혀 볼 수 없는 분들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한울림교회는 현장예배를 비교적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비율도 낮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매주이든 격주이든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대략 55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크기의 어떤 교회는 아직 현장예배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교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당분간 현장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7월부터 현장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건물주인 미국 교회가 9월부터 사용을 허락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게 현장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우리 한울림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물러가도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 수라고 합니다.

비교적 우리는 잘 모이고 있다에 자족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이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말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6,252